

◆ 광고

1. 2부 예배 후에 임시제직회로 모입니다.
2. 오후 예배는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3. 오후 예배 찬양은 연합찬양대입니다. (오후2시, 소망관)
4. 각 기관별 회계장부 감사가 있으니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실버목장 방학
 - ▶ 2016년 12월 24일(토)~2017년 2월 18일(토)까지입니다.
6. 2016~2017 송구영신예배
 - ▶ 2016년 12월 31일(토) 저녁 11시 ▶ 장소: 본당
7. 예결산심의를 위한 공동의회 ▶2017년 1월 1일(주) 2부 예배 후
8.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 최소한 한 주간 전이나 주중에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교인동정

- *생일축하: 광복님,남희중,정인선
- *떡대접: 박영숙B집사/ 베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 교회기도제목

1.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
2.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 천국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3.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대전신일교회 되게 하소서.
4. 12월 중에 있게 될 모든 교회계획과 행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은혜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 모임 / 청지기안내

이번 주 청지기		담당	12월 청지기	담당자
주일 새벽찬양	이번주	제6여전도회	안내	1부 박영숙A, 임희자
	다음주	제7여전도회		2부 정영주, 신선화
수요찬양		남5,6목장	헌금	1부 박영숙A, 임희자
식당봉사		제4여전도회		2부 이승호,오승엽,이진석,광복님,주정주,하문숙

◆ 1월 교회행사

- 1일/ 신일비전현신예배, 공동의회, 직분자임명 • 8일/ 각 기관 월례회(총회)
- 15일/ 직분자 현신예배(제직 세미나) • 29일/ 온가족예배, 정기당회

성 탄 주 일

1부 : 오전 9시 인도 권 칠 현 목사
2부 : 오전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122장

123장

기 도 1부/박권웅 장로
2부/남동균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누가복음 2:8~14 (신 P89)

찬 양 1부/호 산 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 도 설교자

찬 송 125장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115장 다같이

♣ 축 도 설교자

광 고 인도자

✚ 다음주 기도 1부/안재경 장로
2부/원용국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성탄절 칸타타

오후 3시 인도 권 칠 현 목사
설교

예배선언 인도자

찬 송 126장 다같이

기 도 윤성욱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요한복음12:46 (신 P169)

말씀선포 설교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광고/축도 설교자

성탄절 칸타타

✚ 다음주 기도/ 이옥영 집사

오후 7:30 인도 권 칠 현 목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301장 다같이

기 도 윤라미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전도서 7:11~14 (구 P955)

말씀선포 설교자

생 각 하 라

목장찬양 남 5, 6 목장

축 도 설교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남 7, 8목장

✚ 다음주 기도/ 이정숙 집사

No 52. 2016. 12. 25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 십일조헌금

강성우(오이진), 강철원(이재영), 강종자, 김관구(김성욱), 김나경, 김도희, 김성원, 김영민(함현숙), 김진승(윤리미), 박석문(정인선), 박승국(조수정), 박영숙(박희나), 백진국, 송철희, 신금순, 안재경(정은숙), 오승철(김영희), 우수원(유지자), 우필재(박영희), 유대환, 이도희, 이도훈(김성욱), 이진석(윤재진), 이혜숙, 장진용, 정인택(이정숙), 조성철(이해련), 채재규, 최영준(한은정), 최원나, 함두순(박정자), 함정혁, 우 명2

◆ 감사헌금

강성우(오이진), 강예미, 강지원, 강철원(이지영), 강지현, 권철현(박춘화), 김대운(박채리), 김명권(정영주), 김선숙, 김재홍(한영자), 김종남, 김진순(윤리다), 남동근(윤현덕),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영민, 박영숙A, 박영숙B, 박윤서, 박정호, 정형준(이유진), 조재익(임정현), 안재경(정은숙), 양문주(권유순), 오소영(김영희), 우성환, 원용국(김복묵), 유대환, 윤성국(김신혜), 윤대길(조경자), 임유현(정본희), 정연숙, 정옥근(이경미), 정재만, 정태주(김정희), 조성철(이해린), 최효진, 한영실, 황두순(곽정자), 황정민, 무명

◆ 성탄절감사헌금

백춘현, 무명

◆ 장학헌금

강성우(오이진)

◆ 건축헌금

강성우(오이진)

◆ 선교헌금

강성우(오이진), 강철원(이지영), 김성원, 김영민(함현숙), 박근용(최윤자), 박영숙A, 이동근(박영숙), 정옥근(이경미), 조성철(이해련), 채재규

◆ 일천번제헌금

김건국(김성옥,도희),안재경,이영일(홍은미),이재현(리희),장은숙(안소연,진형,진성),정옥근,안스디자인

◆ **비전헌금**

강철원(이지영), 김진승(윤라미), 조성철(이해련), 채재규

12.12(월)~12.18(주)						
초원	목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1초원	1 김종남	교 회	8	29,000	606	교 회
	2 강일창	교 회				
▶2초원	3 양문주	교 회				교 회
	4 우성한	교 회	3	15,000	45	교 회
▶3초원	5 남동균	교 회	4	20,000	50	교 회
	6 안재경	교 회	3	20,000	55	교 회
▶4초원	7 오승엽	교 회	1	5,000	10	교 회
	8 소재익	교 회	2	10,000	5	교 회
여1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3	13,000	150	교 회
	2 김명숙	교 회	5	14,000	145	교 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3	11,000	120	교 회
	4 정채순	교 회	4	12,000	100	교 회
초원	목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여3초원	5 김채욱	교 회	1	3,000	10	교 회
	6 고숙자	교 회	2	8,000	40	교 회
여4초원	7 박복남	교 회	3	11,000	68	교 회
	8 구남량	교 회	3	14,000	75	교 회
여5초원	9 김복금	교 회	2	3,000	15	교 회
	10 함현숙	교 회	1	5,000	15	교 회
여6초원	11 윤현덕	교 회	4	10,000	50	교회
	12 장은숙	교 회	3	7,000	10	교 회
여7초원	13 신윤경	광정자	2	8,000	61	광정자
	14 이경미	광정자	3	14,000		광정자
여8초원	15 오이진	교 회	1	4,000	19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3	10,000	10	교 회
1청년	청년 박진우	교 회				교 회

편작은 죽은 사람도 살려 낸다는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BC403년~221년)의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두 형도 모두 의사였습니다. 다만 두 형은 막내인 편작만큼 세상에 이름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위나라의 임금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삼형제 가운데 누가 병을 가장 잘 치료하는가?”

편작이 대답했습니다.

“큰 형님의 의술이 가장 훌륭하고 다음은 둘째 형님이며 그 다음이 저의 의술입니다.

저의 큰 형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으로 이미 그 환자에게 다가올 병을 압니다. 그리하여 환자가 병이 나기도 전에 병의 원인을 제거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아파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저의 큰 형님이 자신의 고통을 제거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의 큰 형님께서 소문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할 때 그 병을 알아보시고 치료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저의 둘째 형님이 자신의 큰 병을 낫게 해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는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야 비로소 병을 알아봅니다. 환자의 병세가 심각하므로 맥을 짚어 보아야 했고, 진기한 약을 먹여야 했으며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의 그러한 행위를 보고서야 비로소 제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 주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명의로 소문나게 된 것은 이렇게 하찮은 이유에서입니다.

시편121편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병이 낫는 것도 은혜이고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별일이 없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입니다.